

최근의 세계 휘발유가격 동향

무연 휘발유 최종 소비자 가격

휘발유 소비자들은 국제원유가 하락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국가와 통화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Energy Detente"의 자료를 통해 최근 세계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변화를 살펴본다.

국가별 휘발유가격의 변동요인은 국제가격추세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자유시장과 정부 양자에 의해 야기되는 국내시장 요인들의 결과이다. 그러나, 각각의 국제 휘발유시장은 원유가

격과 석유제품의 거래에 따라야 한다. 무역장벽의 붕괴와 유통전략의 향상,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가는 국제적이고 투명한 휘발유시장의 존립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석유제품은 이제 점차로 국경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독자적인 세계 평균 가격의 산출 뿐만 아니라 전세계 휘발유가격에 대한 연구가 필요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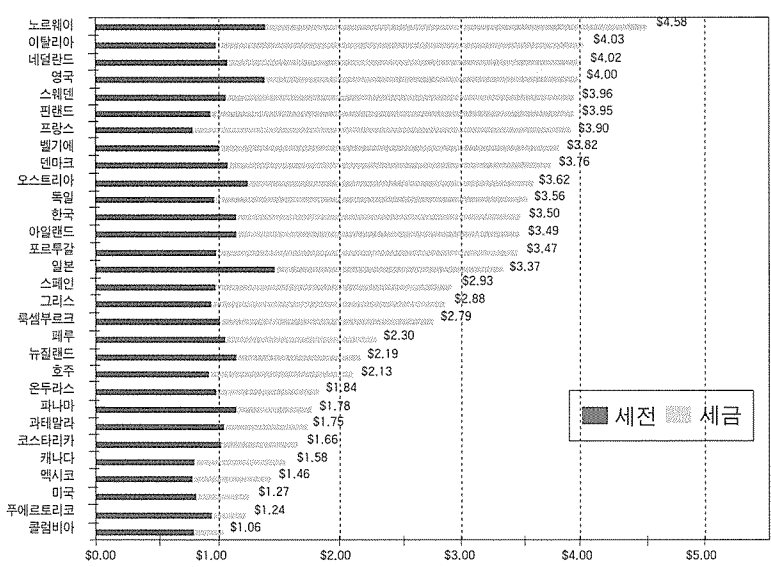
<그림-1>은 주요 30개국에서의 무연 휘발유 소비자가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각 막대는 최종소비자가 가격의 세전과 세금부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자료들은 비교를 위해 각 국내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입수된 시장평균이며 미달러화로 환산된 것이다.

- 통상적으로 서구유럽국가들은 높은 과세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랭크되어 있다. 1위부터 11위까지를 서유럽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그들 지역보다 낮은 가격을 보인다.
- 노르웨이 소비자들은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 많은 휘발유가격을 지불하고 있고 29위인 이탈리아보다 갤론당 55센트를 더 지불하고 있다.
- 미주 국가들은 비교적 낮은 세금과 가격을 고수하고 있다.
- 페루는 무연 휘발유에 대해 갤론당 2.30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작년에 시행된 31센트의 휘발유세 인상에 의한 것이다.

<그림-1> 주요국의 휘발유가격 ('97.7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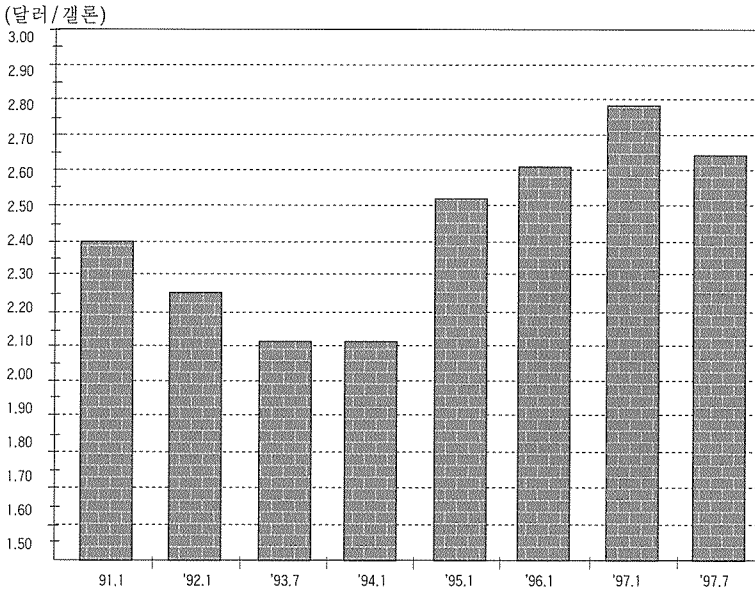
(단위 :달러/갤론)



국제 평균가 하락

<그림-2>는 지난 7년동안의 무연휘발유에 대한 전세계 평균가격을 보여준다 (무연휘발유가 없는 국가에서는 유연휘발유가 조사됨). 모든 국가가 이번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

〈그림-2〉 세계 평균 휘발유 소비자가격 추이 (1991.1~1997.7)



이며, 또한 주요국가의 평균가는 항상 유동적이다. 그러나 이 조사는 항상 국가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소비되는 휘발유의 대부분을 포함한다.

평균가는 '97년 1월과 7월 사이에 14센트가 떨어져 2.63달러가 됐다. 이러한 평균가의 하락은 '93년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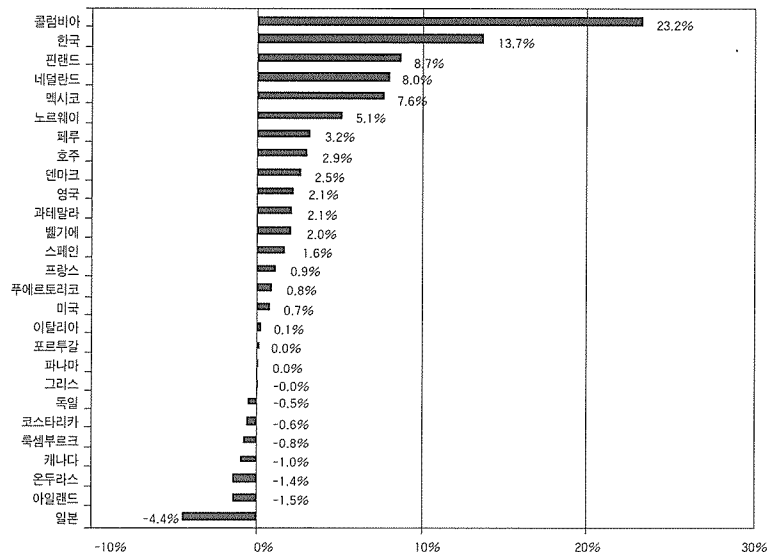
주: 이러한 세계평균 가격의 5%하락은 전적으로 US달러 강세의 결과이다. US달러로 환산되지 않은 국내통화의 가격변화는 다소의 증가와 감소가 혼합된 가운데 형성되었다. 이는 〈그림-3〉에 나타나 있다.

비달러화 가격 변화

〈그림-3〉은 '97년 1월이후 무연 휘

발유 가격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가격에서 표출된 퍼센트의 변화는 환율변화나 인플레이션에 의해 조종된 것이 아니라, 각국의 통화의 변동에

〈그림-3〉 지역 통화별 휘발유 최종소비자 가격변화 ('97.7/'97.1)



서 기인한 것이다. 가격은 미달러로 환산되지 않았다.

일부 경우에는 국가의 물가상승율이 휘발유가격 인상보다 앞서 이루어져 국내의 다른 상품, 서비스가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휘발유가격을 보다 싸게 만들었다. 최종소비되는 휘발유가격은 주요국가 중 17개국에서 인상됐고, 7개국에서만 하락했다.

-콜롬비아에서 가장 크게 올랐고 한국이 그 뒤를 따랐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 이는 계속되는 휘발유수입이 최종소비자가격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비싼 휘발유가격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의 소비자들은 올 1월보다 7월에 5% 더 많은 돈을 지불했다. ☹

〈Energy Detente, '97.8.29〉